

# 주왕산 유래와 지명



## 주왕전설

중국 당나라 덕종 12년 신라 왕손인 주도가 진의 회복을 꿈꾸며 군사 편명을 이끌고 자신을 후주천왕이라 칭하며 반기를 든다.

당의 수도 장안을 공격하던 중 광자에게 패하게 되자 요동반도를 거쳐 신리 땅으로 도망을 오게 된다. 강원도 지역을 거쳐 진성사금의 진보 땅에 도착한 주왕은 석빙산이 매우 깊고 험준하다는 말을 듣고 석빙산(주왕산)으로 숨게 된다.

그후 당나라의 요청으로 신라에서는 미일성장군의 형제를 중심으로 토벌대를 구성하여 주왕을 토벌하기 위해 주왕산으로 오게 된다.

미일성장군 형제들과의 싸움에서 패한 주왕은 주왕굴에 숨어 있다가 화살에 맞아 최후를 마쳤다고 전해온다.

## 주왕산

주왕산(726m)은 우리나라 중앙부에 해당하는 태백산맥의 자맥에 위치하고 경북의 청송군과 영덕군 지역에 걸쳐져 있으며 1976년 3월 30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고 지정 면적은 총 107.425km<sup>2</sup>에 달한다.

주왕산(726m)을 기준으로 공원경계지역인 북서쪽 태행산(933m)과 북쪽 대둔산(905m)을 잇는 제1능선과 북동쪽에 있는 명동재(875m), 먹구등(8462m)과 정북(正北)쪽 금은광이(8124m)를 잇는 중봉격인 제2능선 북동쪽에 위치한 왕거암(9074m) 및 가메봉(882m)과 주왕산을 잇는 제3능선 그리고 북동동쪽에 위치한 대관령과 남동쪽에 위치한 주산재(662m)를 잇는 제4능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왕산국립공원 일대에 분포하는 지질은 산맥브라키 변성암의 일부인 소량의 석회 규산염암층 중생대의 청송 화강암 백악기의 경상계 퇴적암층군과 이들을 관입한 화성암류 및 제기의 충적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에 걸쳐 각력질 안산암이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며 청송 화강암 및 퇴적암층군이 그다음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주왕산은 우리나라 3대 암산(설악산, 월출산, 주왕산) 중의 하나로 기암절벽이 특히 아름다우며 가을 단풍과 어울려진 정경이 장관을 이루는 영남 제1의 산입니다.

주왕산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공원의 총면적이 107.425km<sup>2</sup>이고, 청송군과 영덕군의 2개군 5개읍면 17개리에 걸쳐 분포하고 있습니다.

## 주왕산 사찰

### (1)대전사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20번지에 세워진 사찰입니다. 고려 태조2년에 보조국사 지눌이 주왕의 아들 대전도군을 위해 세운 절이라는 설과 신라 문무왕(62년에 의상조사가 창건하였다고도 하며, 보광전 앞뜰에 세운 두개의 석탑에 새겨진 조각이나 주변에서 발굴 된 불상과 유물의 연대는 통일신라시대로 추측되고 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0교구 은혜사말사이다.

본래는 매우 큰 절로서 많은 승려가 있었다는데 역사가 오랜 절아서 여러 차례의 화재로 소실되고 주요 건물로는 보광전(普光殿)과 명부전 산령각 요사채등이 유물로는 보광전 앞 심층석탑과 사적비부도 등이 남아 있다.

이 중 보광전은(경북유형문화재 22호) 정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 건물로, 내부에 임진왜란 당시 아여송(李汝松)이 유장에게 보냈다는 친필 서신을 목관으로 음각한 것이 보관되어 있다. 보광전 앞의 석탑은 근처에 흩어져 있던 석탑재를 짜맞춘 것이다. 부속암자로 백련암, 주왕암이 있다

### ※이여송 친필현판 (동산문화재 2625호로 지정)

임진왜란 시 아여송 장군이 당시 승병훈련을 시고 있던 사명당에게 보낸 친필이 새겨진 목관이 대전사에 보관되어 있다. 크기는 가로 425cm 세로 245cm이고 그 내용은 의승장에게 줌 승운대선백행불하 뜻이 한갓 공과 아예 없고 오로지 마음을 선과 도를 배우다가 이제 임금의 일이 급함을 듣고 모두 대리고 산이마로 내려오도다 천하장수 태자의 스승 이여송 삼가 초 잡음 이다

### (2)주왕암

대전사 동쪽 바탈친 계곡을 올라가면 안절이라는 별칭이 있는 주왕암이 있는데 이 암자는 대전사와 함께 창건되었다고 하며 주왕의 혼을 위안하기 위해 지은 것이다. 문간채인 기학루는 중층 누각으로 되어 있고 기와는 이끼가 그윽히 끼어 오랜 풍상을 보여주며 16나한을 모신 법당 나한전이 있다.

### (3)백련암

대전사 건너편 옥같이 맑은 개울물과 병풍처럼 에워싼 사찰 무에 감싸인 백련암은 대전사와 함께 지은 절로 주왕의 딸 백련의 이름을 따서 절 이름을 지었다. 이 암자에는 큰 종이 있어 새벽마다 산에 은은한 종소리가 스몄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 종은 없어지고 오직 그윽한 정서를 담고 있다.

## 주왕전설에 얽힌 지명

### (1)주방천에 피어나는 주왕의 넋 수달래꽃

봄이면주방천 계곡을 따라 붉게 피어나는 수달래는 진달래의 산철쪽으로 물가에 피는 진달래에서 유래되어 수달래라 하고 주왕이 화살을 맞고 최후를 맞이할 때 흘린 피가 계곡을 타고 흘렀다 하여 수단화(壽團花)라고도 한다.

### (2)바위에 돌을 던져 점치는 아들바위

가림에서주방계곡을 따라 올라가면 오른쪽길 옆큰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름하여 아들바위이다. 단진 돌이 그바위에 얹히게 되면 득남을 한다는 전설이 있어 호기심에서 탐방객들 누구나 한번씩 돌을 던지고자 한다.

### (3)선녀의 내음이 남아 있는 제1폭포(일명: 선녀폭포)

학소대를 지나 처음 만날수 있는 제1폭포에 도착합니다.여리의 용이 승천한 구룡소와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하였다는 선녀탕이 있다.

### (4)아낙네의 소박함을 간직한 제2폭포

제1폭포에서 2km지점에 있으며 대피소에서 우측계곡 200m로 들어가면 두 줄기로 이루어진 2단 폭포를 만날 수 있다. 3폭포가 남성적인 느낌의 폭포라면 2폭포는 젊은 아낙네의 소박함을 느낄 수 있다.

### (5)주왕의 딸이 기도를 했던 연화굴

1폭포로 올라가다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집목으로 둘러싸인 연화굴에 이른다. 이 굴은 하늘을 볼 수 있게 경사가 직선의 조화를 이루고 연화굴로 통과하는 시원한 바람은 탐방객들의 마음을 이롭게 만든다.

### (6)주왕산의 남성미 제3폭포

가계봉으로 올라가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3폭포는 돌하리를 휘어 감고 2단 작용으로 그 규모가 주왕산 폭포 중에서 제일 대범합니다. 조선시대 때는 내용추 또는 용연폭포라고 불렀다

### (7)떡을 찌는 시루 시루봉

1폭포에서 바로 아래쪽에 있는 임봉으로 떡을 찌는 시루같이 생겼다고 하여 시루봉이라 부른다. 말바닥에서 불을 때면 연가시루봉 전체를 감싸며 봉우리 위로 차솟는다고 한다. 옛날 어느 겨울철 도사가 이 바위 위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산신이 와서 불을 지펴 주었다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으며 앞에서 보면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보인다.

#### (8) 망월대

주왕암에서 급수대로 가는 중앙지점 왼쪽 편에 망월대가 있다. 45명이 앉을 정도로 편한 자리여서 이곳에서는 사면을 두루 살필 수 있고 드높은 하늘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다. 주왕암 협곡에서는 달을 바라볼 수 없어 대전도군과 백현리가 이 망월대 위에서 달을 보면서 향수를 달랬다고 한다.

#### (9) 물을 길어 마셨다는 급수대

주방계곡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기암절벽인 급수대는 망월대에서 5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신라 3대 선덕왕이 후예가 없어서 중대 및 각부대신들이 무열왕 6대손인 상재 김주원을 38대왕으로 추대하였는데 즉위 작전에 돌연 알찬이 범람하여 강을 건너지 못하였으며 이에 김경신(원성왕)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신라 김주원이 왕위를 양보하고 석방산(주왕산)으로 은신하여 대궐을 건립하여 은둔 생활을 하면서 계곡에 식수를 퍼 올렸다고 하여 급수대라 불리게 되었다.

#### (10) 청학과 백학이 살던 곳 학소대

일제시대에 정상 부근에 청학과 백학 한쌍이 살았는데 어느 날 사냥꾼이 백학을 쏘아 잡자 청학이 슬피 울면서 배회를 하다 자취를 감춰 버렸다는 슬픈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이다. 지금은 산세의 자저림만 때때로 치고 있다.

#### (11) 주왕산의 얼굴 기암 (旗巖)

주왕산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고개를 들어보는 곳이 바로 이 기암으로 주왕이 신라 미장군과 일전을 벌일 때 깃발을 꽂아 병사가 많은 것처럼 위장을 했다는 전설이 있다.

#### (12) 무기를 숨겨 둔 무장굴(武裝堀)

주왕이 자신의 갑옷과 무기를 숨겨둔 굴이라 하여 무장굴이라 한다.

#### (13) 주왕이 숨어 살았던 주왕굴(周王堀)

주왕암 뒤편 오름편에 협곡이 있다.

파란 하늘이 이득히 내다보이는 좁은 바위틈 길을 따라 3m쯤 들어가면 거대한 암벽에 부딪치게 된다. 약 50여m 되는 절벽 하단에 세로 5m 가로 2m 정도의 동굴이 있는데 주왕이 미장군에게 쫓겨서 숨어

살았던 동굴이다. 깊이 2m 정도의 굴속 구석진 곳에는 탕화(부처님의 불상 그림)가 안치되어있고, 굴에 올라가는 길은 너무나 가파른 암벽이어서 쇠다리를 잡아야 올라갈 수 있는데 절벽 정상에서 끊임없이 떨어지는 물줄기의 포말로 인하여 오색 찬란한 무지개가 꿈처럼 서린다. 주왕이 천연의 요새인 이곳에서 대방의 꿈을 저버리지 않고 재를 다잡하다가 미장군의 화살에 맞아 죽었다고 한다. 주왕이 미장군에 쫓겨 숨어 살던 굴이며, 주왕이 굴 앞에 떨어지는 물을 받아 마시던 중 미장군 군사의 화살에 맞아 죽은 곳이다.

#### (14) 자하성 (紫河城)

주왕이 병사를 훈련시키기 위해 쌓은 성으로 주왕굴을 중심으로 사방을 방어할 수 있는 요새였으며 곳곳에 부서진 성채의 잔해가 아직도 남아 있다.

#### (15) 병풍바위

학소대 옆에 있는 바위는 마치 병풍을 세운 듯하여 병풍바위라 불리어지고 있다.

#### (16) 가메봉 (882.8m)

주왕산 일원이 한눈에 다 들어올 정도로 조망이 뛰어난 가메봉은 일출 또한 매우 이롭다. 워 탐방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 (17) 주왕의 기상이 살아 있는 장군봉

장군봉은 주왕산 입구 북측 해발 약 500지점에 위치하고 주왕이 병사를 지휘하던 장군대가 설치된 바위라 하여 장군봉이라 하고, 사람의 이마를 닮았다고 하여 이마바위라고도 한다.

#### (18) 혈암

장군봉에서 정상을 향하다 보면 맞은편에 보이는 바위가 붉은색을 띠다 하여 혈암이라 합니다.

#### (19) 관음봉 (觀音峰)

관음봉은 주왕암 뒷편에 있는 묘한 임봉으로, 그 생김새가 관음보살을 닮았다고 하여 관음봉이라 부른다.

#### (20) 천연의 자연림 절골계곡

주산지와 연계된 계곡으로 주왕산에서 가장 완림으로 남아 있는 계곡이다. 계곡 입구에서 신술골 절터, 대문다리를 거쳐 가메봉으로 이어지는 탐방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경관이 빼어난 계곡이다.

### (21) 닭 우는 소리가 나서 달기 약수탕

청송읍에서 동쪽 약 3km 떨어져 있는 달기약수는 조선 철종 때 금부도사를 지낸 관성하가수로공사중 비위틈의 버드나무를 뽑자기가와 함께 물줄기가 솟아 이상히 생각하고 물맛을 보았다니 속이 편하여 그후로 약수로 알려져 있다.

### (22) 남성적인 늠름한 기상 달기(월외폭포)폭포

청송읍 월외리에 위치하고 있어 월외폭포라고도 한다. 높이 11m 폭포 밑의 용소의 깊이는 명주귀리를 다 풀어도 하상에 닿지 않을 만큼 깊어서 용이 등천하여 용추폭포라고도 한다

### (23) 살아 숨쉬는 왕버들나무 주산지

청송군 부동면 이천리에서 약 2km 거리에 위치한 주산지는 1720년 8월 조선조 숙종 46년에 착공하여 그 이듬해 10월 경중완년에 준공하였으며 6천여평 남짓한 면적으로 60여 가구가 이 물을 이용, 농사를 짓고 있다. 길이 100m 넓이 50m 수심 8m의 아담한 이 호수가 주왕산 연봉에서 뻗친 울창한 수림으로 둘러싸여 마치 별천지에 온 것 같이 한적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가 잠시나마 속세를 잊고 휴식을 취하기에 더 없이 좋은 곳이다.

주산지는 반쯤 몸을 담은 150년 이상 된 왕버들나무들이 고요히 살아 숨쉬고 있다. 물안개가 파어오르는 새벽녘, 왕버들나무를 감싸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는 주산지의 300여 년의 시간만큼이나 빛이 난다. 또 이 호수는 준공 이후 현재까지 아무리 오랜 기쁨에도 물이 말라 바닥이 드러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호수 속에는 약 150여년이나 묵은 왕버들 30여 그루가 자생하고 있어 그 풍치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로 아름답다.

또 이 호수 제방 위에는 이공(李公),성공(成公)의 송덕비가 있으며 비문에는 일장저수(晷章貯水), 류혜만인(流惠萬人), 불망천추(不忘千秋), 유일편갈(惟一片碣)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